



편집자의 말

안청시 (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아시아리뷰』를 창간하면서 제1권 제1호에서는, 창간 기념 특별기고 논문과 함께 ‘아시아 지역·주제 연구의 쟁점과 현황’을 기획주제로 다룬 연구논문들을 실은 바 있다. 이어 발간된 제1권 제2호에서는 ‘세계의 중심 이동과 한반도’를 기획주제로 선정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번 통권 3호에 해당하는 제2권 제1호에서는 앞의 두 주제를 연속기획으로 다루고자 한다.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축이 동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변환기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사회가 중심부를 향해 도약하고 매진하는 길을 모색해보는 두 번째 기획연재로 세 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신옥희 교수의 논문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통합적 이론으로서 위협균형/위협전이론”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세력판도와 영향력 전이의 중심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중일 삼각관계가 안정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갈등적 미래를 초래할 것인가를 전망하는데 활용 가능한 기존의 작업들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 관점을 도출해보려는 이론적 시도를 담고 있다. 최진우 교수의 “유럽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유럽통합”은 현대 유럽 각국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의 효능성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이 거세지고 그 여파로 극우정당들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다문화성의 정치화와 증폭되는 문화적 갈등이 유럽통합”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진단해 준다. 장덕준 교수의 “러시아의 재부상과 동북아”는 푸틴의 새 집권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재부상이 정치 안정, 경제 상승, 외교적 공세에 이어서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인 한반도 개입 노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증진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 러시아 외교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두 번째 연속기획 주제인 ‘아시아 연구의 쟁점과 현황’에는 두 편의 논문을 다루었다. 전경수 교수의 “종속적 지역연구와 내관적 사회문화론”은 아시아연구소의 연례 특별 학술 행사인 ‘아시아포럼’(2012년 3월 22일)에서 발표한 강연문 “아시아 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관점”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이번 호의 편집 기획 의도에 맞도록 제출해 주었다. 엄구호 교수의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 동향”은 기초연구와 응용정책 연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연구사가 일천하고 지원이 낙후된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의 동향과 추세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경로의존 가설과 ‘결정적 국면’ 개념을 원용하여 한국형 발전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돌파를 모색하는 황석만 교수의 기고 논문 “박정희 경제체제의 형성과 지속: 경로의존적 접근”도 이 연속기획 논문 묶음에 포함시켰다.

이어서 이번 호의 세 번째 기획연구로 ‘현대 호주 정치사회의 쟁점’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아시아연구소는 창설 목표에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국내 학계에서 연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나 주제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2010년부터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남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을 포괄하는 ‘오세아니아 연구센터’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현대 호주 사회에 대한 기초연구를 지난 2년간 지원해 왔다.

호주는 한국과 오랜 정치적 우방관계에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인적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의 연구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오세아니아 연구센터는 첫 번째 연구과제로 ‘호주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정치·사회적 변화’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호주의 연방제, 호주의 정체성과 다문화주의, 기후변화와 환경정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리뷰』는 이번 호에 “호주 연방제의 특성과 변화”를 다룬 강원택 교수와 “‘호주인’의 경계 설정: 호주 민족 정체성의 등장과 변화”를 다룬 김범수 교수의 논문을 각각 실는다.

위에 소개된 8편의 논문은, 전경수의 논문을 제외하고, 2012년 5월 11일에 개최된 아시아연구소의 국내 학술회의를 통해 일차 검증을 거쳤다. 발표와 토론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하여 필자들이 재수정, 보완 후 최종 제출된 논문들

은 마지막 심사과정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윤문교정팀을 거쳐서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호에 소개되는 전문 서평 편에는 최근에 출간된 두 책을 다루기로 했다. *Nonkilling Korea: Six Culture Exploration*(Glenn D. Paige and Chung-Si Ahn, eds.,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의 서평은 정대화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3김 정치시대와 그 이후』(임혁백 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의 서평은 박찬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각각 집필해 주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편집위원회를 대신하여 『아시아리뷰』 제2권 제1호가 발간되는 과정에서 훌륭한 논문을 기고해주신 집필자분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논문 심사를 담당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아시아리뷰』에 대한 독자제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2012년 6월

